

시론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곁으로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3D프린팅과 같은 핵심 기술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서로 연결하고 지능화시키면서 삶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는 로봇, 자율 주행차, AI 등 기술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콘텐츠 제작·소비·유통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이 각광받고, 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생산주체로 부각되기도 한다. 새로운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과 같은 응용기술에 기반한 뉴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새롭게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서 뉴콘텐츠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최신 유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할 뿐이지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은 지역의 편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 못지 않게 유망주를 육성하고 콘텐츠 원천소재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한 뉴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R&D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와 융·복합 창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여수시

를 배경으로 오프라인 공간과 디지털기기가 결합된 증강현실 빅데이터 콘텐츠 '리얼월드 여수'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영광 칠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할 뿐이지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은 지역의 편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 못지 않게 유망주를 육성하고 콘텐츠 원천소재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가져올 것이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위상이 변화하고, 콘텐츠 유통과 소비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 변화의 흐름을 반영할 뉴콘텐츠 개발과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지역 문화산업 진흥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과제다.

社說

출구없는 금호타이어 사태 이대로 둘 것인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대한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경영정상화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와 이종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첫 면담을 가졌으나 양측간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실마리를 푸는 데 실패했다.

산업은행측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를 안하면 법정관리라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더라도 노조가 우려하는 '떡튀'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승용차 타이어 기술을 가지고 (더블스타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럭 타이어를 생산할 수 없다"며 "더블스타가 공장(광주·곡성공장) 문을 닫아서 무슨 이익을 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한국 마켓쉐어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력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시설(광주·곡성공장)을 뜯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런 사태(떡튀)가 벌어지더라

도 자산매각 이전은 소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2 쌍용자동차와 같은 '떡튀 행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외매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노조는 "2010년부터 5년간 상여금을 받던 임금을 삭감하며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이렇게 된 데는 채권단 책임도 크다"며 "노조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점예한 대립 속에 노조는 23일까지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8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24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선택지는 해외매각이 아니면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데 어느 쪽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협의체 구성도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벼랑 끝에 놓인 금호타이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것인지 지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기아차 스포티지 광주경제 효과노릇 '톡톡'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 생산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25년만에 5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1993년 7월 출시된 이후 세계시장 누적 판매 대수가 올해 2월말 현재 500만3천537대에 이른다. 국내에서 68만4천186대가 팔렸고, 수출되거나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도 각 196만6천414대, 235만2천937대 판매됐다.

기아차 모델 가운데 '판매 500만대' 기록은 소형 승용차 '프라이드'(해외명 리오, 중국 K2 포함)가 지난 2015년 달성한 뒤 두 번째다. 스포티지가 프라이드와 함께 명실상부 기아차의 대표 모델로 부상하면서 광주경제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티지는 현재 국내에서는 광주공장, 해외에서는 중국,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돼 세계 각지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46만886대가 팔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아차 안에서 '최대 판매' 차종 자리를 지켰다. 특히 2016년(57만5천520대 판매)의 경우 기아차 차종 중 '역대 최대 연간

판매' 기록까지 세웠다.

1991년 10월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인 스포티지는 승용차 감각의 소형 SUV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도요타 RAV4, 혼다 CR-V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도심형 소형 SUV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2010년 등장한 3세대 스포티지의 경우 2006년 기아차 디자인 최고 책임자로 영입된 피터 슈라이어의 영향으로 기아차의 디자인 상징(s symbol) '타이거 노즈(호랑이 코) 그릴'이 처음 적용됐다. 2010년 iF 디자인 어워드(상)를 시작으로 같은 해 굿 디자인 어워드, 2011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기도 했다. 3세대 스포티지는 2014년에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최신 4세대 스포티지는 특히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15년 9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103만6천947대가 팔렸다. 지역민들은 '스포티지'가 '붕고' 신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자치칼럼



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가뭄, 하늘만 원망할 때는 지났다

월 초 기준 전남지역 저수지 1,046개소의 평균 저수율도 60%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76% 대비 79% 수준이며, 봄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 73%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의 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년 월 강수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닌 상황이라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재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뭄시스템은 선진국의 가뭄관리 시스템에 비해 취약한 점이 많다. 우선 가뭄에 대한 정보 제공이 관련 기관별로 다원화되고 서로 연계가 부족해 산만하다. 특히 같은 가뭄지수 아래서도 기관별로 표시한 값이 달라 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등 신뢰성 또한 떨어진다. 정보의 범위 자체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특별한 대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가뭄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또한 미흡하다. 기관별로 대응체계가 상이해 형식적인 가뭄관리 대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며, 가뭄심도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하다. 선진국의 경우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자료 연계 및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가뭄정보를 통합해 통합된 지수를 제공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더불어 기상전망정보에 대한 정확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기관별 정보를 체계화해 정보의 실시간 생산을 가능하게 해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물의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 역시 정부에서 공을 들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른 가뭄에 대비해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인공강우를 연구하는 기관과 전문가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안정감 있게 개발해 오고 있지만, 국

내의 인공강우 연구는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려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이 힘들다. 또한 지속적인 인공강우 발생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법적 제도 정비와 안정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국가 경영의 근간이었고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수(利水) 역시 한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들기도 했다. 물은 국가 경제·사회·안보의 근간이며 물 공급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다. 세계물위원회 이사마 엘 세라헬딘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21세기 전쟁은 물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비가 내리기만 바라며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다. 오늘 비가 내렸다고 가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가뭄은 또 찾아온다.

독자투고

스쿨(School) #미투(Me too)

대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안전사회라 말하곤 하지만 실상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지적해 오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저히 순수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져서 일어난다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고 OECD회원국 중 학교폭력 청소년 피해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용화자면 신학기인 작년 3월과 4월에 학교폭력 신고전화로 하루 평균 248건의 상담이 접수되면서 신학기 초에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만의 일 때문이 아닌 가정불화, 이혼, 경제적 어려움, 비이성적 또래문화, 성적위주 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발달 배경은 무엇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오로지 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 어느 학생만의 잘못과 책임으로 평가하는 단일한 관점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당국의 문제제기는 소극적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선결과제라는 큰 틀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서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일정부분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할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소할 지라도 폭력에 자주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교육시스템 마련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신학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생면담, 예방홍보 등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며 안전한 명확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학교에서 스승이 존중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탈되면 결국 학교 내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훈육체계가 무너지게 될은 자명한 일이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만능주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참된 인성교육도 병행되었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판단능력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학교폭력에 도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때마침 교육당국에서는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수업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학교를 현행 6배 수준인 9,000여 학교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은 소식이 들린다. 학교폭력 예방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교육당국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우리 사회 아픈 단면 사회상이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면 한다.

/*유용하·정성경행서 정보계장

그래픽 뉴스

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 판매가격 중 절반이 '유통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은 유통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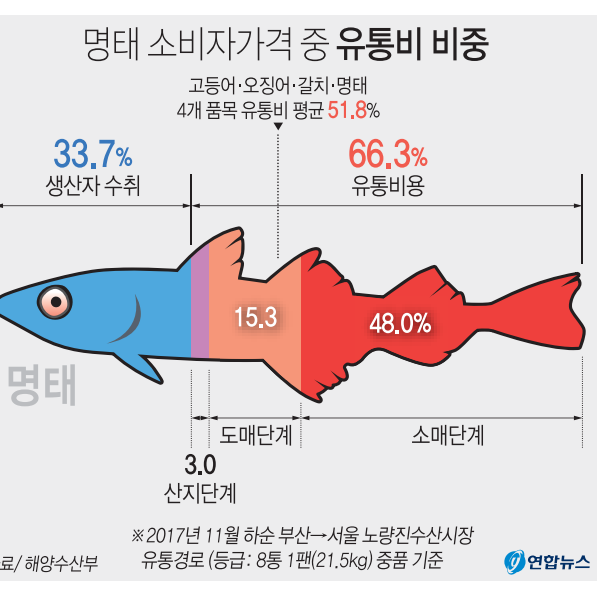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의 판매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8%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쌀·감자·고구마 등 농산물 주요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이 53.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명태의 유통비 차지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어 56.7%, 갈치 44.7%, 오징어 45.9% 순이었다. 유통비 비중이 51.8%라는 것은 어떤 수산물 소비자 가격이 1천 원이라 가정하면,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통비용이 평균 518원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나눠보면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83원, 도매 단계에서 140원, 소매 단계에서 295원으로 조사됐다.

소매 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손질 및 포장 등 상품성 제고 노력, 매장 유지관리비 등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산지 수산물 유통의 중심축인 위판장의 노후화로 전반적인 품질·위생관리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위판장 시설 연수별 비중을 보면 10년 미만 45%(85곳), 11~20년 25%(47곳), 21~30년 17%(33곳), 31년 이상 13%(24곳)로 조사됐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지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인부 650-2080 서설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편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